

상반기 국내 IT산업 동향과 시사점

(KETI)

1. 서론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열위였던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수입확대, 자원활용의 효율성 증대, 산업발전, 수출증대 및 수입능력 제고라는 무역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수출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열쇠를 쥔 제조업은 대략 10년 주기로 주력업종을 바꾸어 왔다. 지난 60년대에 본격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는 경공업을 위주로 출발했다가 70년대에는 철강·기계 등 중화학공업으로, 80년~90년대 초반까지는 가전·자동차 등 조립 가공산업으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IT산업으로 중심 축을 옮겨왔다.

올해 상반기 IT 산업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SARS 여파, 세계적인 IT 공급과잉과 경쟁격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IT수출증가는 이동전화단말기, 액정모

니터(TFT-LCD) 등 세계적인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수출이 큰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IT수출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여파, SARS 여파, 선진국의 경기회복지연 등 여러 가지 돌발적인 대외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DRAM업계의 재고조정에 따른 IT수출 수요 증가, 주요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CDMA가입자 증가와 GSM 단말기의 수출증가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의 수출확대, 휴대폰과 모바일에 투입되는 반도체 부품수요와 맞물린 반도체경기회복 등이 추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세계 IT산업은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우수한 노동력에 더하여 이제는 세계에서 일류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IT시장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IT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IT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무역의존과 IT 수출

90년대에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휴대폰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했다. IT산업은 90년대 전반에는 DRAM을 포함한 반도체가 후반에는 이동전화단말기로 대표되는 통신기기와 노트북 및 액정모니터(TFT-LCD) 등의 정보기기의 수출이 IT수출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IT수출 증가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경제가의 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는 다음의 <그림 1>과 <표 1>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추이를 보면 1980년대 60~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중반에는 무역의존도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무역의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에 수출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전체산업과 IT산업의 수출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전체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0%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27.8%로 상승하였으며, 무역수지 비중을 보면 2000년에 전체산업의 무역수지를 초과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무려 240.4%의 점유함으로써 IT산업이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98년 이후 무역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상승한 이면에는 IT산업의 수출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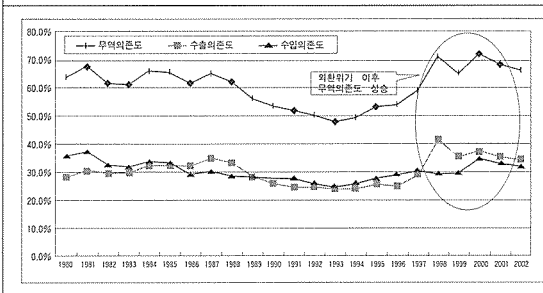
<표 1> 전체산업 및 IT산업의 수출입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상반기
전체 산업	수출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471	89,198
	수입	93,282	119,752	160,481	141,098	152,126	85,886
(A) IT	수지	39,031	23,933	11,787	9,341	10,345	3,312
	수출	30,480	39,919	51,074	38,316	46,046	24,814
산업 (B)	수입	18,226	26,511	35,425	27,826	30,738	16,850
	수지	12,254	13,408	15,649	10,490	15,308	7,964
IT 비중	수출	23.0%	27.8%	29.6%	25.5%	28.3%	27.8%
	수입	19.5%	22.1%	22.1%	19.7%	20.2%	19.6%
(A)/(B)	수지	31.4%	56.0%	132.8%	112.3%	148.0%	240.4%

자료 : KOTIS, 관세청, IITA

<그림 1>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추이



주 : 무역의존도=(수출+수입)/명목GDP, 수출의존도=수출/명목GDP
수입의존도=수입/명목GDP로 계산 자료 : KOTIS, KOSIS

이러한 IT수출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단말기로 대표되는 통신기기와 인터넷의 보급확대에 따른 정보기기 수요는 90년대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으로 2001년도에는 큰 폭의 수출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디지털컨텐츠 제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IT수요를 형성하면서 진화·발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T산업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분업과 협업 체제 속에서 각 국가간 경제적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세계 각 국은 IT산업

을 동시대의 성장엔진으로 인식, 중점 육성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은 IT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IT산업은 유·무선통합, 통신·방송 융합화 등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3. 2003년 상반기 품목별 IT수출입현황

● 통신기기

2003년 상반기 통신기기 수출입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40.0%증가, 3.4% 감소한 79.2억 달

리, 1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통신기기 수출의 66.4%를 차지한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한 52.6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동전화단말기의 수출증가는 컬러단말기, 카메라폰 등 고급기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유럽에 대한 성공적인 GSM 시장 진출, 중국의 CDMA, GSM 단말기 특수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단말기 산업의 세계시장지배력과 제품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은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이 늘면 핵심부품 수입도 늘어 외형적 성장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표 2〉 이동전화단말기 시장 신경쟁 구도의 주요 그룹별 역량 비교

구분	주요 기업	강점	약점
한국	LG, 삼성, 팬택&큐리텔, 텔슨, 어필 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디자인, 빠른 제품 출시, 제품 다양화, AVIT 융합 등 - 대량 생산 기술 및 원가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원가, 납기 측면 우위 • CDMA계에서 규모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기술부족 - 핵심 부품의 높은 외부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적기 대응 일본 대비 열세 • 부품 수급 불안정 위험 - 해외 시장 유통 기반, 브랜드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미국 등지에서 현지 기업 대비 열세 - 글로벌 생산체제 미 구축
유럽/미국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알카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칩셋, 기술 표준 선도 - 유럽, 미국, 중국 시장에서 유통기반, 브랜드력 확보 - 규모의 경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으로 조달, 제조상 우위(특히 노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경쟁력 상의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다양성 부족, 느린 개발 속도, 중저가 제품 위주 - 대량 생산 기술상의 열위(노키아 이외) -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혼란
일본	마쓰시타, NEC, 샤프, 산요, 미쯔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부품 조달상의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을 내부 생산 • World Top 부품 기업과 밀착 관계 - 차세대 기술상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T 융합상 우위(종합가전기업) • W-CDMA 등 3G 선행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경쟁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출 물량, 규모의 경제 미달 • 독자 표준 집착으로 R&D 효율저조 • 신제품 출시 속도상의 열세 • 자체 개발/제조 선호로 고 원가 구조

자료 : 나준호, "휴대폰 산업의 신성장 엔진 카메라폰", LG주간경제, 2003. 6. 25



위의 <표 2>는 향후 휴대폰 시장의 신경쟁 구도의 주요 그룹별 역량을 비교한 것이며, 우리나라와 유럽/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3강 체제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이동전화 단말기 수출은 상반기의 수출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적으로 이동전화단말기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과 중국의 로컬업체의 성장으로 중국특수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 정보기기

2003년 상반기 정보기기 수출입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 3.5% 증가한 47.2억 달러, 2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정보기기 수출의 51.9%를 차지한 모니터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2% 전 분기 대비 9.5% 증가한 24.5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정보기기 산업의 수출환경은 상반기 동안 그리 밝지 못했다. 특히, PC산업은 전 세계 PC 제조사 설계생산(ODM)시장을 놓고 아시아 최대 PC 생산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과 대만업체와의 경쟁심화, 미국·서유럽·일본 지역의 PC수요정책, PC 대체수요 사이클 지연, PC생산의 해외이전 등의 성장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PC업계는 스마트디스플레이·테블릿PC 등 Post PC 개발에 역량을 집중, 차세대 수익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PC시장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액정모니터(TFT-LCD)의 경우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고화질·경량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대, 둔화를 보이고 있는 CRT모니터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 환경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고화질 모니

터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액정모니터가 정보기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액정모니터(TFT-LCD)의 경우 5세대 라인의 본격 가동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및 관련 기업의 수익성악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액정모니터(TFT-LCD)를 포함한 평판디스플레이 부문이 DRAM에 이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의 공급과잉 문제는 IT산업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방송시기

2003년 상반기 방송시기 수출입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0.4%, 120.4% 증가한 9.8억 달러,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방송기기의 수출증가는 디지털방송 환경의 조성에 따른 위성방송수신기와 디지털TV의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방송환경 측면에서 국가별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2010년 이전에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또한 2003년 디지털 방송을 광역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2005년까지 전 지역에 디지털 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디지털TV와 위성방송수신기는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TV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의 가시화에 따른 시장환경의 조성과 향후 시장 성장성이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볼 때 CDMA, TFT-LCD, DRAM에 이른 차세대 중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TV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디스플레이, 주요기관, T-commerce 등 전망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전방산업인 디지

텔 가전산업 등에서 관련 국내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디지털TV 시장 성장에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년 전후로 중국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공세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보통신부품

2003년 상반기 정보통신부품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 28.9% 증가한 111.8억 달러, 12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부품 수출의 75.5%를 차지한 반도체 및 부분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증가, 전분기 대비 5.9% 감소한 84.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17.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3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 등 디지털 컨버전스의 제품의 부품수요 증대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널리 여러 군데에 쓰이는 특성, 곧 범용성이 높고 적은 품종으로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성이 낮고 다품종 소량 주문 받아 생산하므로 수요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연구개발비 부담 급증으로 투자 위험도 커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DRAM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표 3〉 정보통신 수출 현황(반기별)

(단위 : 백만달러, %)

	2002년		2003년	변화율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통신기기	5,637 (26.7%)	7,717 (31.0%)	7,916 (31.9%)	40.4%	2.6%
-유선통신기기	520 (2.5%)	578 (2.3%)	573 (2.3%)	10.2%	-0.8%
-무선통신기기	5,117 (24.2%)	7,139 (28.7%)	7,343 (29.6%)	43.5%	2.9%
이동전화단말기	3,928 (18.6%)	5,392 (21.7%)	5,260 (21.2%)	33.9%	-2.4%
이동전화시스템	68 (0.3%)	132 (0.5%)	144 (0.6%)	112.5%	9.2%
정보기기	4,623 (21.9%)	4,778 (19.2%)	4,716 (19.0%)	2.0%	-1.3%
-컴퓨터본체	803 (3.8%)	860 (3.5%)	791 (3.2%)	-1.5%	-8.0%
PC	773 (3.7%)	811 (3.3%)	738 (3.0%)	-4.6%	-9.0%
Desk Top PC	297 (1.4%)	227 (0.9%)	51 (0.2%)	-83.0%	-77.7%
Note book	476 (2.3%)	584 (2.3%)	687 (2.8%)	44.3%	17.7%
-컴퓨터 주변기기	3,515 (16.6%)	3,563 (14.3%)	3,624 (14.6%)	3.1%	1.7%
모니터	2,348 (11.1%)	2,236 (9.0%)	2,447 (9.9%)	4.2%	9.5%
방송기기	423 (2.0%)	538 (2.2%)	976 (3.9%)	130.4%	81.2%
-위성방송수신기	315 (1.5%)	403 (1.6%)	395 (1.6%)	25.5%	-2.0%
부품	10,432 (49.3%)	11,818 (47.5%)	11,179 (45.1%)	7.2%	-5.4%
-반도체 및 부분품	7,798 (36.9%)	8,977 (36.0%)	8,445 (34.0%)	8.3%	-5.9%
-기타	2,634 (12.5%)	2,841 (11.4%)	2,734 (11.0%)	3.8%	-3.7%
패키지 S/W	25 (0.1%)	54 (0.2%)	27 (0.1%)	6.9%	-50.0%
합계(반도체 제외)	13,342 (63.1%)	15,929 (64.0%)	16,369 (66.0%)	22.7%	2.8%
합계(반도체 포함)	21,140 (100.0%)	24,906 (100.0%)	24,814 (100.0%)	17.4%	-0.4%

주 : ()는 부문별(품목별) 수출 비중

자료 : 관세청, IITA



〈표 4〉 정보통신 수입 현황(반기별)

(단위 : 백만달러, %)

	2002년		2003년		변화율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통신기기	1,519 (10.9%)	1,612 (9.6%)	1,467 (8.7%)	-3.4%	-9.0%	
-유선통신기기	745 (5.4%)	760 (4.5%)	682 (4.0%)	-8.4%	-10.2%	
-무선통신기기	774 (5.6%)	852 (5.1%)	785 (4.7%)	1.4%	-7.9%	
이동전화단말기	60 (0.4%)	80 (0.5%)	53 (0.3%)	-12.1%	-33.8%	
이동전화시스템	23 (0.2%)	10 (0.1%)	14 (0.1%)	-40.4%	43.4%	
정보기기	2,074 (14.9%)	2,204 (13.1%)	2,146 (12.7%)	3.5%	-2.6%	
-컴퓨터본체	435 (3.1%)	495 (2.9%)	466 (2.8%)	7.0%	-5.9%	
PC	177 (1.3%)	220 (1.3%)	196 (1.2%)	11.1%	-10.8%	
Desk Top PC	65 (0.5%)	74 (0.4%)	57 (0.3%)	-13.0%	-23.7%	
Note book	111 (0.8%)	145 (0.9%)	139 (0.8%)	25.3%	-4.2%	
-컴퓨터 주변기기	1,590 (11.4%)	1,645 (9.8%)	1,610 (9.6%)	1.2%	-2.1%	
모니터	382 (2.8%)	364 (2.2%)	334 (2.0%)	-12.8%	-8.3%	
방송기기	50 (0.4%)	64 (0.4%)	111 (0.7%)	120.4%	72.8%	
-위성방송수신기	8 (0.1%)	9 (0.1%)	6 (0.0%)	-28.1%	-39.8%	
부품	10,015 (72.0%)	12,664 (75.2%)	12,906 (76.6%)	28.9%	1.9%	
-반도체 및 부분품	7,842 (56.4%)	10,018 (59.5%)	10,221 (60.7%)	30.3%	2.0%	
-기타	2,173 (15.6%)	2,646 (15.7%)	2,685 (15.9%)	23.6%	1.5%	
패키지 S/W	242 (1.7%)	294 (1.7%)	220 (1.3%)	-9.3%	-25.3%	
합계(반도체 제외)	6,058 (43.6%)	6,820 (40.5%)	6,629 (39.3%)	9.4%	-2.8%	
합계(반도체 포함)	13,900 (100.0%)	16,838 (100.0%)	16,850 (100.0%)	21.2%	0.1%	

주 : ()는 부문별(품목별) 수출 비중

자료 : 관세청, IITA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인텔의 스프링데일 칩셋 출시에 따른 PC시장의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02년 주력제품 이었던 SD램에서 DDR 램으로 대체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상승과 수출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가 향후 수출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2003년 상반기 IT무역특화지수 현황

2003년 상반기 국내 IT산업의 무역특화지수

〈표 5〉 2003년 상반기 IT산업의 무역특화지수 및 교역비중

	무역특화지수			교역비중추이		
	'02상반기	'02하반기	'03상반기	'02상반기	'02하반기	'03상반기
통신기기	0.58	0.65	0.69	20.4%	22.3%	22.5%
-유선통신기기	-0.18	-0.14	-0.09	3.6%	3.2%	3.0%
-무선통신기기	0.74	0.79	0.81	16.8%	19.1%	19.5%
이동전화단말기	0.97	0.97	0.98	11.4%	13.1%	12.8%
이동전화시스템	0.49	0.86	0.82	0.3%	0.3%	0.4%
정보기기	0.38	0.37	0.37	19.1%	16.7%	16.5%
-컴퓨터본체	0.30	0.27	0.26	3.5%	3.2%	3.0%
PC	0.63	0.57	0.58	2.7%	2.5%	2.2%
Desk Top PC	0.64	0.51	-0.06	1.0%	0.7%	0.3%
Note book	0.62	0.60	0.66	1.7%	1.7%	2.0%
-컴퓨터 주변기기	0.38	0.37	0.38	14.6%	12.5%	12.6%
모니터	0.72	0.72	0.76	7.8%	6.2%	6.7%
방송기기	0.79	0.79	0.80	1.4%	1.4%	2.6%
-위성방송수신기	0.95	0.95	0.97	0.9%	1.0%	1.0%
부품	0.02	-0.03	-0.07	58.4%	58.6%	57.8%
-반도체 및 부분품	0.00	-0.05	-0.10	44.6%	45.5%	44.8%
-기타	0.10	0.04	0.01	13.7%	13.1%	13.0%
패키지 S/W	-0.81	-0.69	-0.78	0.8%	0.8%	0.6%
합계(반도체 제외)	0.38	0.40	0.42	55.4%	54.5%	55.2%
합계(반도체 포함)	0.21	0.19	0.19	100.0%	100.0%	100.0%

주) 무역특화지수 : (수출-수입)/(수출+수입)로서 1에 근접하면 수출특화(수출경쟁력이 있음), -1에 근접하면 수입특화(수출경쟁력이 낮음)를 나타냄

자료 : 관세청, IITA

와 교역비중추이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품목별 무역특화지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이동전화단말기, 노트북, 모니터(TFT-LCD), 위성방송수신기 등은 무역특화지수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esk Top PC, 반도체 및 부분품은 수입특화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Desk Top PC의 노트북으로의 대체수요 증가와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점차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및 디지털 컨버전스에 쓰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유선통신기기와 패키지S/W는 전년동기대비 수입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역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품목별 교역비중 추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통신기기와 방송기기가 교역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정보기기와 부품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이동전화단말기로 대표되는 통신기기와 위성방송수신기, 디지털TV로 대표되는 방송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액정모니터와 노트북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Desk Top PC와 CRT모니터의 수출감소의 영향을 받은 정보기기와 상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의 수출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국가별 IT 수출입 현황

2003년 상반기 국내 IT수출의 국가별 특징은 수출 상위 5개국에 60.4%,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무려 78.6%에 이르는 등 특정국가에 수

출이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현재 미국(20.0%)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5.3%), 홍콩(11.4%), 일본(8.3%), 대만(5.4%), 싱가포르(5.1%), 독일(4.3%), 말레이시아(3.3%), 영국(2.9%), 필리핀(2.7%)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중국(홍콩포함)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중국 등 아시아의 역내무역의 성장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가 동반 침체되는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으나 중국 등 역내무역의 성장은 경기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IT수출시장이면서 또한 경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IT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 주요시장에서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7~8%대 성장을 지속해 2010년대에는 세계의 경제대국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요처로서의 시장과 경쟁관계로의 부상 등 기회와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하반기 지역별IT 수출환경은 북미는 소비심리 호전으로 하반기 수출경기의 미미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기업 투자 및 IT경기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이 예상되며, 중국은 SARS확산 둔화에 따른 수출 상담 활성화가 예상되며, 베이징 올림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IT 수입수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는 건실한 성



장세로 꾸준한 수출 확대 기대된다. 그러나 SARS 후유증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능성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IT수출 상위 10대 국가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98-'01			'02			'03. 상반기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1	미국	46,519	29.1%	미국	10,767	23.4%	미국	4,957	20.0%
2	일본	14,950	9.4%	중국	5,994	13.0%	중국	3,790	15.3%
3	홍콩	11,899	7.4%	홍콩	4,634	10.1%	홍콩	2,834	11.4%
4	대만	11,099	6.9%	일본	3,973	8.6%	일본	2,056	8.3%
5	싱가포르	10,577	6.6%	대만	3,105	6.7%	대만	1,341	5.4%
-	5개국 합	95,044	59.5%	5개국 합	28,473	61.8%	5개국 합	14,979	60.4%
6	중국	8,540	5.3%	싱가포르	2,294	5.0%	싱가포르	1,254	5.1%
7	영국	8,063	5.0%	독일	1,864	4.0%	독일	1,073	4.3%
8	말레이시아	7,914	5.0%	영국	1,838	4.0%	말레이시아	817	3.3%
9	독일	7,153	4.5%	말레이시아	1,454	3.2%	영국	713	2.9%
10	필리핀	6,202	3.9%	필리핀	1,225	2.7%	필리핀	665	2.7%
-	10개국 합	132,917	83.2%	10개국 합	37,147	80.7%	10개국 합	19,500	78.6%

주 : 98-01은 해당 기간별 수출액을 합한 후, 전체 IT수출에서 각 국가별 비중을 구하였음

자료 : 관세청, IITA

6. 결론 및 시사점

2003년 상반기 국내 IT 수출은 이동전화단말기, 액정모니터(TFT-LCD), 노트북 등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17.4%의 성장한 2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산업에서의 비중도 27.8%를 기록하였다. 또한 부문별로는 이동전화단말기로 대표되는 통신기기와, 디지털TV, 위성방송수신기의 방송기기는 수출호조를 보인

반면,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던 반도체 부문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문별로 성장과 침체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향후 IT 산업은 향후 디지털 컨버전스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의 출시와 서비스의 확대가 선 순환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IT 산업성장을 통한 수출확대는 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쟁자산을 제공한다. 또한 IT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쟁우위요소 창출은 상대적으로 부존자원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향후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원천기술 부족(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급 부담이 가중)을 극복하고, 둘째, 반도체와 TFT-LCD 등 소자산업의 기반산업인 장비·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표준기술부재(대부분의 세계표준기술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의 취약성은 산업의 부품 자립도를 낮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IT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첫째,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산업화가 필요하고 둘째, 내부적으로 원천·표준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의 기술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IT 기술표준화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셋째, IT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외부경제 창출효과가 큰 통신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넷째, IT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정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는 IT 신 성장 동력 발굴에 따른 R%D 환경 조성 과 산업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시기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